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4, 사사기 1-3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4회기, 사사기 1-3장, 웃니엘, 에훗, 삼갈입니다.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 데이비드 하워드 박사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사기의 서문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이제 사사기에 대한 고찰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집필한 사사기의 개요를 당신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따라서 당신이 그것을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저는 책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주제, 즉 이스라엘의 배도를 중심으로 그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한 두 가지 소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장은 1절부터 2절까지 5절, 그 다음에는 2절부터 6절부터 3절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배도의 뿌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일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과 16장 끝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배도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2장과 3장에서 이 기간 동안 반복되는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이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동일한 용어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사이클에 가깝고 상황은 하락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심사위원 자신이 때로는 해결책만큼이나 문제의 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책이 끝나고 책 끝에 그 더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미는 이스라엘에 경건한 왕이 있었다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럼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도의 서막은 1장부터 2장, 5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군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다른 부분으로 설명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일종의 불완전한 정복인 가나안 정복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 다음 22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은 일부 특정 지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서문에서 여호수아서에서와 같이 사사기 시작 부분에서 명확한 지도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그 이후의 장로들의 날 동안 계속 여호와를 따랐으나 그 이상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향 나선형을 혼란에 빠뜨리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앞장서서 이곳 땅으로 들어가서 그의 형제 시므온과 그들의 땅인 시므온과 유다를 빼앗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토지 분배 목록에는 시므온의 기업은 성읍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온에게는 국경 목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동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은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성에 불을 붙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죄송합니다. 몇 가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세덱 (Adonibezek) 이라는 왕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각 도시에는 그들만의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가나안의 왕들은 실제로 더 많은 왕들, 즉 주변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바빌론의 왕과 같은 큰 왕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좀 더 지역화된 왕이거나 거의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다시 언급되고 있으며, 여호수아서로 돌아가면 유다와 베냐민의 국경에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63절에는 유다에 관한 장 마지막 부분에 유다가 예루살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경에 도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17장 이후의 장들 중 하나인 장 후반부에서 당시 예루살렘이 실제로 외국 도시로 간주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다윗 시대까지는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부스 족속의 이름을 따서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은 일종의 일시적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우리는 베냐민이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일종의 유동적이었던 도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훨씬 나중에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왕국의 수도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11절에는 갈렙의 이야기, 특히 그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벨 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에게 자기 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웃니엘은 앞으로 나아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거의 한 마디 한 마디 반복됩니다. 이 작은 부분은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인 여호수아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마디 한 마디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발췌한 내용 중 몇 가지 다른 구절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갈렙의 딸은 담대히 축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샘물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번영하려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15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후에는 종려나무 성읍에서 백성과 함께 유다 광야로 올라온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 있느니라.

모세의 장인은 출애굽기의 이드로였으며 이곳의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겐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0장에서 그들에 대해 읽습니다. 여기서의 협력은 모세가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겐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리라고 말한 것을 성취합니다.

팜스(Palms)라는 도시는 여리고(Jericho)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근처 계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자지구와 다른 일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남서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블레셋 영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니라(19절). 그러나 평지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에 관한 사무엘서의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무기에 대해 또 다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 지금은 몇백 년 후인 사무엘, 다윗, 사울 시대이고, 특히 여기는 사울 왕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은 이에 대한 또 다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보습과 곡괭이와 도끼와 낫을 버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라. 보습과 곡괭이의 비용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를 갈고 염소를 놓는 비용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철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는 독점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기서 요점을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그림이 있다면 그 땅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중앙에 높은 산등성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계곡 아래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사해로 해수면보다 약 1,200피트 정도 낮고, 여리고는 그 계곡에 있으므로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매우 가파르게 올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산등성이가 있고 여기는 산간 지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남서쪽 해안을 따라 살았고 거기 땅은 평평했습니다. 따라서 전차가 해안을 매우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전차는 산간 지방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차가 없었던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철 무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사사기 1장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절은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베냐민 자손이 있더라.

우리는 앞서 논의에서 이 책이 집필된 연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 책 전체, 즉 이 부분은 확실히 다윗 이전인 기원전 1000년경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1350년이나 그 어딘가, 300년 이상 전쯤일 것입니다.

22절 이하에는 불완전한 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정복은 다가올 재앙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지파들, 아마도 에브라임, 므낫세, 또는 확실히 에브라임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2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적어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들은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 구역의 성공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민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6장의 짧은 이야기가 이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므낫세는 벳스안 주민들과 그 마을들과 그 주변 모든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7절 후반절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1절, 아셀. 33절, 납달리.

그리고 34절에는 단 지파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평지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니 우리는 단 지파가 바다 근처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가나안 반대자들에 의해 북쪽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책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 뒷부분에서 더 확장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다소 불길한 시작입니다. 적합과 시작을 보지만 대부분은 적합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완료했어야 했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큰 신용이 아닙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사자가 와서 백성에게 말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경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검토합니다. 1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보았습니다.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래서 그것이 주어진 지시인데, 천사가 고발하는 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주님의 천사는 그들에게 다소 무서운 예언을 내립니다. 3절,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옆구리에는 가시가 있을 것이며, 신들이 네게 울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거의 한 단어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빨리 살펴보고 싶다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르노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나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와 덩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가 이 모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사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사자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로로,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였더라 2:5] 이는 우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괜찮고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책의 첫 번째 서문이 끝났습니다. 이는 나중에 펼쳐질 모든 배교에 대한 일종의 서막입니다.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책에 대한 두 번째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그 중 저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한 부족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 세부 사항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했고, 누가 저것을 했는지, 누가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 누가 저것을 하지 않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일반화된 미리보기이자 좀 더 개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다른 나라의 손아귀에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등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음 섹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호수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플래시백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망 통지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책의 두 번째 소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습니다(1장 1절). 여호수아는 다시 죽지 않고 오히려 일반화된 배교에 대한 묘사를 더 많이 소개하는 일종의 정보 반복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여호수아의 그림은 여호수아의 시대와 그와 살았던 장로들의 시대에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매우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관한 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강의를 보거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본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또 다른 경건한 지도자를 지정하는 데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이후 여러 세대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만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풀리는 배교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인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찾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사사기의 이야기 전개에 도움이 되는 관련 세부 사항도 추가합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즉 11절부터 이 장의 끝까지는 이런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람 저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후 백성은 고통을 겪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음 사사를 일으키사 그들을 구원하시매 그 땅이 x년 동안 안식을 누렸느니라. 따라서 기억 장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 놓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구원, 구원을 보내시고 안식일의 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일종의 순환이고, 이 이후에는 다시 저 것으로 돌아와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

패턴은 나중에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반향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 섹션에서 일종의 제시 방식이고 우리는 그것이 배경이고 구조이고 이야기 뒤에 있는 중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후에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좇았으며(12절)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노략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이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환난에 빠졌더니(15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고(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계셨으나(18절), 그러나 19절에서는 사사가 죽을 때마다 그들이 돌아섰더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였으므로 그들은 더욱 부패하였고 그러한 종류의 일은 우리가 말한 하향 나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두 번째 소개의 끝은 3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6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주심에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적들의 손에

그들을 다른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억압 아래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들리는데, 하나님은 깡패로서 그들을 이런 억압 아래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 그들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실하게 남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6절의 요점입니다. 5절에는 여러 민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했고, 그들의 딸들은 자기들이 데려갔습니다. 아내, 딸,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통혼이 있었고 신을 섬겼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다른 시기의 혼합주의에 관해 조금 분리된 부분을 기록했으며,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 보상은 무엇이었으며 보상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섹스와 돈, 또래의 압력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디오 클립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강한 인센티브나 강한 연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3장 7절부터 모든 사사들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열두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문에서 대판사와 소판사가 있다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12명의 판사 중 7명은 대판사, 5명은 소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배우는 것이고 그들이 판단하는 곳에서만 몇 년이 될지 알 수 있으며 그게 한두 절 정도입니다.

주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더 많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웃니엘(3장 7절부터 11절)은 대사사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책 후반부에는 심사위원의 이야기 중 일부가 확장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8장에는 기드온, 11장에는 입다, 13~16장에는 삼손이 있습니다. 웃니엘은 다섯 구절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판사입니다. 그가 참전한 전투와 그의 시대에 그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출했는지도 있습니다. 이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10장 6절에서 여호와의 편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13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주요 판사의 이야기는 서곡으로, 이는 2장의 일반화 진술을 반영하여 이것에 대한 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그 밖의 모든 것이 흘러 나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음 적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옷니엘이 그 첫 번째입니다. 7절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 언급했는데, 가장 높은 신은 엘이었지만 그는 다소 먼 존재, 주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세라이고 바알은 주요 신이었고 그의 아내는 때때로 아세롯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아세라도 그의 아내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국가의 만신전의 흐름도와 구조에는 일종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 보세요. 우리는 고대 사회에는 네 가지 수준의 신과 여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호수아 강의 일부 맥락에서 앞서 언급했습니다. 가장 높은 신들의 최상위 레벨, 아주 소수.

산, 언덕, 바다, 강 등 자연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는 다음 단계의 신들입니다. 다음 부분은 다양한 지역의 신들, 바알 오브 프올(Baal of Peor),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과 라반과 같은 개인 가족의 신들입니다.

라헬은 떠날 때 드라빔을 훔쳐 담요로 덮고 라반이 그것을 가지러 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을수록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폭풍이 닥칠 때, 요나가 탄 배에 탄 선원들이 두려워할 때, 모두가 자기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신은 일할 것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면 정복된 민족의 신과 여신을 자신의 시스템에 동화시킬 것이며, 자신의 신이 가장 높은 신이 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일부가 되어 증가할 것입니다. 국가들 사이에는 문자 그대로 수십, 심지어 토렘까지, 때로는 수백 명의 신과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주인공으로 보고, 아세라는 아마도 바알의 아내로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급한 가나안 본문에서 아세라는 바알의 아버지인 아세라의 아내에 더 가깝습니다. 바알의 어머니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분명히 성경, 사사기, 사무엘서, 특히 열왕기서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신에게서 돌아섰을 때 바알과 아세라가 예배의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매 그들이 그를 섬기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웃니엘을 일으키시니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매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함을 받고 죽은지라. 그래서 그것은 간략한 나침반, 캡슐 형태로 우리가 언급한 주기의 일종이며, 이것은 12 사사 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기로서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니어처로 포착합니다.

사사기에 관해 토론할 때 주님의 영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의 영은 웃니엘, 삼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으며 이는 구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님의 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는데, 이는 힘의 위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시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번째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에훗인데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사해의 동쪽이었고, 에훗, 즉 에글론은 당시 이스라엘의 표준적인 적이었습니다. 모압인들은 아브람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므로 일종의 사촌들 사이에 이런 종류의 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경과 그 이후를 통해 본 것처럼, 일시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훗. 에글론과 에훗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재판관인 에훗과 모압의 왕인 에글론은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히브리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히브리 이야기의 다양한 특징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종종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서에서 확실히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약 1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5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과 하서는 다윗의 삶, 사울의 삶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의 매일 또는 심지어 시간 단위로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책이 더 짧습니다. 이 책의 길이는 47장이며 약 40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스의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더 넓은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왕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간결하고 훨씬 더 공식적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에는 매우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여기에 에훗과 에글론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훗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15절).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자신의 손에 물건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변장하고 옷을 입고 옷 속에 칼을 숨기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시늉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마치고 하인들이 떠나면 왕과 함께 방으로 돌아와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제 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른손에서 공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므로 왼손 공격이 오면 왕에게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결코 알 수 없지만 21절과 22절에서 우리는 매우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에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만든 영화인지 아니면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는 텔레비전 쇼, 유혈, 피, 내장 등. 그러나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그의 배 곧 에글론의 배를 찌르니 자루가 칼날 뒤에 들어갔더라.

배에서 칼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칼날 위에 지방이 닫히고 똥이 나오고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투성이이고,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수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그 점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저자들이 이런 종류의 세부 사항을 제시할 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단지 일반화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여전히 그 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그들은 들어가서 그를 찾아내고 에훗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모압은 30절 끝입니다. 29절에 그들은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은 항복했고 이제 그 땅은 8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안식할 수 있는 공식은 40년, 80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이름이 삼갈인데, 그에 관한 내용은 단 한 구절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읽는 학자나 보는 주석에 따라, 때때로 삼갈은 한 구절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소사사 중 한 명으로 나열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군사 지도자였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주요 판사 중 한 명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단 한 구절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주요 판사들과 함께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낏의

아들 삼갈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소 염소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전부이지만, 그것은 꽤 인상적인 업적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인지,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아다치 사람의 턱뼈도 가졌던 삼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소 염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3분의 1, 즉 심사위원에 대한 처음 세 가지 이야기는 결과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심사위원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 심사위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3장에서 에훗의 계략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그것들은 꽤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세 장의 끝에서 여기서 멈추고 나중에 Deborah와 Beric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4회기, 사사기 1-3장, 옷니엘, 에훗, 삼갈입니다.